

## 최신 ICT 이슈

### II. 실리콘밸리에 늘어나는 하드웨어 스타트업, 생태계 구축이 배경

◎ 실리콘밸리에서는 최근 하드웨어 개발 스타트업이 늘고 있는데, IT 기기나 디지털 기기가 아니라 주방 가전과 같이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하드웨어 개발을 겨냥하는 것이 특징

- ▶ 사실 실리콘밸리는 그 이름이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에서 유래한 데서 알 수 있듯, 원래는 반도체와 컴퓨터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모이는 장소였음
- ▶ 그러다 1990년대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득세하게 되면서, 지금까지도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가리키게 되었음
- ▶ 그런 실리콘밸리에서 최근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, 그 중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주방 가전 혁신 기업들임
- ▶ 일례로 2018년 1월에 아마존닷컴의 벤처 캐피털(VC) 부문인 ‘알렉사 펀드(Alexa Fund)’가 이미지 인식 AI(인공지능)를 탑재한 ‘준 인텔리전스 오븐(June Intelligent Oven)’을 판매하는 ‘준 라이프(June Life)’에 투자한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하였음
- ▶ 준 인텔리전스 오븐은 본체 내부에 설치된 HD 카메라가 재료를 촬영하고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인식 AI가 재료의 종류와 상태를 인식하여 최적의 온도에서 자동으로 조리해 주는 주방 가전임
- ▶ 준 라이프의 공동 설립자이자 CTO를 맡고 있는 니킴 보갈은 애플에서 아이폰의 카메라 개발을 담당했던 엔지니어였으며, 그 밖에 기업 직원의 절반이 애플 출신이라고 함



<자료> June Life

[그림 1] 준 인텔리전트 오븐

\*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(☎ 042-612-8296)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(soma0722@naver.com ☎ 02-576-2600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\*\*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.

◎ ‘Sous Vide’(프랑스어로는 수 비드, 영어로는 수스 바이드)는 ‘진공 조리’나 ‘저온 조리’를 의미하며, 이 조리법을 구현하는 가전 스타트업들도 최근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음

- 수 비드 쿠킹은 스테이크 육류 등의 재료를 진공 포장한 후 60 도 정도의 저온에 증탕하여 재료 중심부의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조리법임
- 가령, 증탕으로 고기의 내부를 레어 혹은 미디엄 상태로 만든 후 겉을 프라이팬에 구우면 밖은 고소하고 안은 적절히 익힌 최상의 스테이크를 실패하지 않고 요리할 수 있음
- 수 비드는 원래 고급 레스토랑 등 프로 셰프의 세계에 보급된 조리법이지만, 2010년대 들어 수 비드 전용의 저렴한 소비자 가전이 등장하며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음
- 소비자용 수 비드 제품은 측정기 형태를 띠고 있으며 용기에 꽂아 사용하는데, 블루투스 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에 연결한 후 다운로드 한 레시피 정보에 따라 전용 앱을 통해 온도 조절을 하는 것이 일반적
- 수 비드 조리 가전 스타트업인 ‘아노바 컬리너리(Anova Culinary)’는 2017년 2월 유럽의 대표 가전업체인 일렉트로룩스에 2억 5,000만 달러에 인수되어 화제를 모은 바 있음
- 일렉트로룩스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창업한 아노바 컬리너리의 매출은 2016년 말 기준으로 4,000만 달러였다고 함



<자료> Anova Culinary

- 한편, 아노바 컬리너리 보다 1년 빠른 [그림 2] 수 비드 요리 가전 아노바 2012년에 창업한 또 다른 수 비드 조리 가전 스타트업인 ‘노미쿠(Nomiku)’ 역시 2017년에 삼성전자의 투자를 받았음
- 노미쿠는 2017년부터 진공 조리용 식재료 택배 서비스도 시작했는데, 조리할 음식은 진공 포장되어 배달되며, 진공 팩에는 RFID가 내장되어 있어 조리기의 센서가 RFID를 읽어 들이면 적절한 온도와 조리 시간이 자동으로 설정됨

◎ 조리 가전 스타트업의 강점은 레시피와 소프트웨어에 있는데, 온도와 가열 시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소위 ‘IT 요리’를 손쉽게 만들 수 있게 해 줌

- ▶ 이미지 인식 AI 오븐과 수 비드 조리 가전 등은 모두 음식을 조리하는 온도와 가열 시간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데, 요식업계에서는 이런 요리를 ‘IT 요리’라 부르며, IT 는 Temperature(온도)와 Time(시간)의 약어임
- ▶ 조리 가전 스타트업들은 IT 요리를 위한 레시피를 자체 개발하고 스마트폰 전용 앱에 이 레시피를 전달하여 스마트폰에서 조리 가전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구조를 만들었음
- ▶ 지금까지 조리하는 ‘사람’을 대상으로 작성된 레시피들은 ‘중불’, ‘고열’ 등 다소 정확하지 않은 모호한 표현으로 불의 세기를 설명하고 있어, 이를 본 사람들이 레시피를 충실히 재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음
- ▶ 이에 비해 레시피에 충실한 맛있는 요리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새로운 가전 스타트업들이 제공하는 하드웨어의 가장 큰 장점임

◎ **지금 실리콘밸리에서 하드웨어 가전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들을 지원하는 ‘생태계’가 실리콘밸리에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**

- ▶ 하드웨어 업체들을 지원하는 생태계의 핵심은 하드웨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VC 와 스타트업을 멘토링 하는 액셀러레이터 등을 말함
- ▶ 가령 ‘HAX Accelerator’는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탈 SOSV 가 운영하는 하드웨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서 노미쿠 외에, 상품 진열대 모니터링 로봇을 만드는 ‘심비 로보틱스(Simbe Robotics)’, 상품 배달 로봇 ‘디스패치 로보틱스(Dispatch Robotics)’ 등을 배출하였음
- ▶ HAX 액셀러레이터의 모태는 SOSV 가 2012 년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한 ‘차이나 액셀러레이터’로, 당초에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대상 액셀러레이터였지만, 하드웨어 업체 대상으로 HAX 를 중국 선전에 추가 설립했으며, 2015 년부터는 미국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음
- ▶ SOSV 에 따르면, 선전은 시드 스테이지의 스타트업에 대해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거점이며, 샌프란시스코는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조달 전략 및 마케팅 전략



<자료> HAX Accelerator

[그림 3] 샌프란시스코의 HAX 액셀러레이터

수립을 지원하는 거점임

- ▶ HAX 에서는 프로토타입이 아직 없는 스타트업들에게 우선 선전의 거점에 입주하여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도록 목표를 설정해 주며, 선전의 거점에 '졸업'한 스타트업은 샌프란시스코로 본사로 옮겨 이곳에서 '시장 출시(Go To Market) 전략'을 구상하게 함
- ▶ 샌프란시스코 거점의 핵심 기능은 VC 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방법이나 '킵스타터(KickStarter)' 등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제품 홍보, 그리고 향후 하드웨어의 주요 유통경로가 될 대형 소매체인과의 협상 방법 등에 대한 코칭임
- ▶ 이미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스타트업은 선전 거점의 트레이닝을 생략하고 바로 샌프란시스코 거점에서 지원을 받게 되며, 이에 따라 HAX 의 샌프란시스코 거점에는 자국에서 프로토타입 개발을 마치고 세계 시장 진출 노하우를 얻기 위해 모여든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음
- ▶ 이들의 출신국은 대만, 홍콩, 인도, 크로아티아, 우크라이나, 러시아, 아르헨티나 등 전세계에 걸쳐 있으며, 제 2, 제 3 의 노미쿠와 아노비를 목표로 하는 하드웨어 기업들이 계속해서 HAX 를 찾아 모여들고 있음

◎ **비즈니스 전략을 포함하여 글로벌 양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실리콘밸리가 이제는 전세계 하드웨어 벤처들을 끌어 모으고 있음**

- ▶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라 하면 하드웨어 개발만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, 오히려 스타트업들은 자금 조달 전략 및 마케팅 전략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의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음
- ▶ 게다가 이들 액셀러레이터는 중국과 대만의 ODM(주문자 상표에 의한 설계·생산) 사업자들과 연계되어 있어,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난 후 양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타트업들로서는 액셀러레이터와의 협업이 성패의 중요 관건이 되고 있음
- ▶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에 이어 이제 실리콘밸리는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의 요람으로 또 한번 거듭나려 하고 있음

(Huffpost, 1. 4. & ITPro, 1. 26.)